

[종합·해설]

5·31 지방선거 뒤는 사람들 ⑧

■ 장성군수

■ 보성군수

공동학군제·친환경농업 이슈

“재정자립도 올리겠다” 3명 출마



고일갑 김종길 김영풍 김한중 김흥주 유두석 이병직

지난해 말 인구 5만명이 무너지면서 교육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젊은층이 계속 빠져나감에 따라 공동학군제의 필요성이 재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교통의 요지이면서 광주 인근이라는 이점을 살려 전일제 단지를 조성, 인구를 끌어들이고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흥식(69) 현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할 수 없게 돼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7명의 예비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 장성군수 출마예정자(여·아, 가나다순)

Table with 5 columns: 당, 이름, 나이, 현직, 학력, 대표경력. Lists candidates like 고일갑, 김종길, 김영풍, 김한중, 김흥주, 유두석, 이병직.

(유권자수: 4만120명 / 2005.11.30 현재) ※우=열린우리당, 민=민주당

現군수 불출마 ... 7명 후보 경합 인구유출·고려시멘트 이전 쟁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어서 당내 경합은 민주당이 훨씬 치열하다. 공무원 출신인 김영풍씨와 김한중 전남도의원, 김흥주 정보통신기술대 이사장, 유두석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이병직 전남도의원 등 5명이 당내 공천을 신청했다. 김씨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고려시멘트 이전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장성호 순환도로를 하루까지 관광도로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늘려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육산업등록제를 강화하고 고가 농기계 임대 및 유류구조 개선을 통해 농민 소득 증대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축산업 진흥을 위해 축산계를 축산과로 승격시키고 마을별 공동취사장 운영을 지원하며 독가노인 공동주택 건립, 고려시멘트 부지 주거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

혔다. 유 전 국장은 "분당·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건설 등 30여년의 견고한 행정경험과 중앙정부 인맥을 총동원해 고향 발전에 헌신하겠다"며 1마을 1특색사업, 시민감사관제,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광주와 학군통합으로 교육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룡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레저단지 조성과 미곡처리장(RPC) 최첨단화, 권역별로 특화된 개발을 역설하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전남도당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지낸 고일갑 전남지방자치연

구소장과 민선 3기 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종길 월간 '원'발행인이 표 발강에 나섰다. 김 소장은 행정과 주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황룡강 생태공원과 백양사-축령산-황룡강을 연계하는 관광벨트 조성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기업육성에 힘쓰겠다고 도전장을 냈다. 김 발령은 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한 '쟁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대단위 실버타운 건설, 먹을거리와 연계한 관광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정성=고재민기자 jbg@

녹차와 관소리의 고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다양한 녹차 관련 상품 개발과 녹차밭을 배경으로 한 영화·드라마 촬영, 녹차온천 등 '녹차산업'의 경제효과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고 지역경제 기반도 취약해 주민들은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보성과 별교간 개발 격차도 논란거리다. 지난해 8월 "원만한 군정수행을 위해 당분간 당적을 갖지 않겠다"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이후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하승완 현 군수는 3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 군수는 민선 2기 출범 당시 단순농업에 머물러 있던 녹차를 산업화시켜 연간 5천억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거뒀고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또한 재임기간 추진해온 한국차·소리문화공원, 해수휴양타운, 비봉공룡공원, 소설 태백산맥문화공원, 주안호 생태습지 조성 등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수성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 군수는 "별교고막을 명품브랜드화해 녹차와 함께 투박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남해안관광벨트를 비롯한 권역별 관광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당초 3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했으나 정종해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지원본부장을 제외한 2명이 '불공정 경선' 등을 주장하며 중도 사퇴했다. 정 전 본부장은 "10%대의 재정자립도와 취약한 경제기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라고 진단했다. 기획예산처 기획예산담당관과 전남도 경제협력관을 지낸 기획예산전문가로서 그동안 지역 예산확보를 위해 기울여왔던 노력을 적극 알리면서 재정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표심을 파고 들고 있다. 2002년 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는 김종표 기정종합건설(주) 회장과

재도전에 나섰다. 김 회장은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전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고장을 만들고 친환경·기능성 농산물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자립 보성군'을



정종해 김종표 하승완

■ 보성군수 출마예정자(여·아 무소속, 가나다순)

Table with 5 columns: 당, 이름, 나이, 현직, 학력, 대표경력. Lists candidates like 정종해, 김종표, 하승완.

(유권자수: 4만4,270명 / 2005.11.30 현재) ※민=민주당, 무=무소속

現군수-민주-무소속 3파전 보성-별교 개발 격차도 논란

이끌었다"는 각오다. 보성과 별교간 대립 해소에도 힘을 요망이다. /정성=고재민기자 who@kwangju.co.kr /보성=안규민기자 giahn@

선거법, 아하! 그럼군요. 여론조사 결과 인쇄물 제작 배부는 위법. 시장 입후보예정자 갑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자신의 지지율과 함께 상대 입후보예정자인 을과 병의 지지율을 조사했다. 갑은 자신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여론조사의 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뿐만 아니라 인쇄물로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했다. 갑의 행위는 선거법상 가능할까? 선거일 6일 전(5월25)까지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거법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인쇄물로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발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선거일전 60일(4월1일)부터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광주시 의료안내. "아름다운 의료문화를 열어가려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병원". Includes lists of hospitals and clinics such as 광주현대병원, 김병원, 원문병원, 류피부비뇨기과, 최석현성형외과, 광주안과의원, 박은안과, 이연안과병원, 박안과의원, 김광수이비인후과, 허웅·허준이비인후과, 무등안과의원, and others.